



- 우연한 만남
- 운명적 사랑
- 사랑의 방해
- 사랑의 완성



- 온전한 이별



- 사랑에 대한 용기

소크라테스 : 사랑은 '욕망의 다른 이름'

에로스: 풍요의 남신 '포로스(poros)'
가난의 여신 '페니아(penia)' 사이에서 탄생.

풍요(과잉)과 가난(결핍) 사이에서 존재

주체의 부족과 결여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타자를 갈망

사랑의 불완전함에 대한 수용

나와 타인의 결핍을 인정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

자기 만족적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해

"인간의 한평생은 거대하고 영원한 사랑의 과정이다."- 쥘리아 크리스테바,
<<사랑의 역사>>-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사랑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의미들을 발견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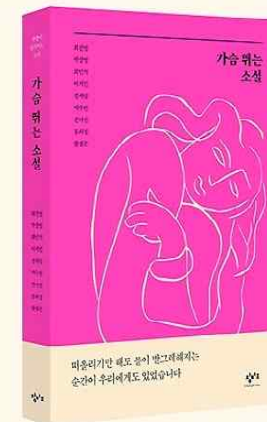


드라마 <RUN ON>(jtbc)



단편소설집 <가슴 뛰는 소설>

“아름다웠다. 가슴이 뛰었다.”
믿고 읽는 작가 9인이 전하는 사랑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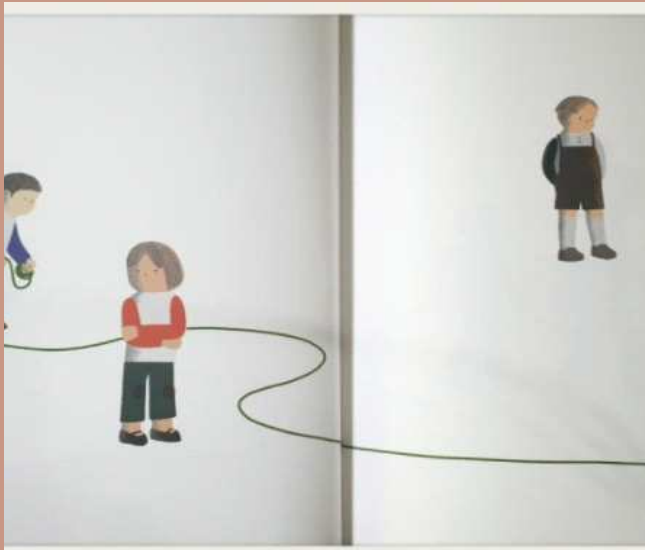


『가슴 뛰는 소설 : 사랑이 움직이는 순간』

최진영 박상영 최민석 이지민 정세람 백수린 권여선 홍희정 황정은







나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이지 않는 선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 다릅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더듬지 않고 표현할 최선의 방법부터 생각하다 보니,
내게 감정이란 남들에게나 속하는 것, 세상의 행복한 소유물일 뿐
나로서는 솔직하지 않은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 데이비드 실즈-



-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하기

사람들은 분명한 것에 대해 말할 때 더듬거리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더듬거리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이 분명한 듯 말하기도 한다.

문학은 분명하다고 오해되는 것들, 우리의 감정, 자아, 삶에 대해 다시 묻는다. 그리고 문학은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더듬거리면서 말한다.